시민 참여로 빛난 나주…전남 시(市) 단위 사전투표율 1위

나주 사전투표율 38.06% 전남 5개 시 중 최고 기록

선거일 본투표소 안내문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전남 시(市) 단위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민주주의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나주시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전라남도 시 단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적극적인 맞춤형 홍보와 투표 편의 지원이 더해지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선거인 9만 9957명 가운데 3만 80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38.06%의 투표율을 나타내며 선거인 3명 중 1명 이상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남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나주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제6회 17.86%, 제7회 30.22%, 제8회 29.49%를 모두 넘어선 최고 기록이다.

시는 사전투표율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게시대와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 물놀이 안전대책 수립…인명사고 '제로' 총력

담양군이 여름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되는 한재골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한층 강화된 감시·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점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이호범 부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사전투표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능주면 복지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기표소 배치와 투표함 관리 상태 등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장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군민들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민·관 협력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나선다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를위한 대책 회의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지난 28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6년 영광군 자살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했으며 영광군 부군수(자살예방관)를 비롯해 영광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영광군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살위험 신호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지역사회 중심의 생명안전망 구축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 마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은 행정만의 역할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위기 상황 시 즉시 신고·연계 체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자살예방관 운영 방향과 현장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 기자

장성군 남면, 어르신 가구 20곳 LED 조명 설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손끝으로 켜는 밝은 세상' 사업 추진

장성군 남면이 최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의 일환으로 '손끝으로 켜는 밝은 세상' 사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손끝으로 켜는 밝은 세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에 엘이디(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조명은 어르신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리모컨을 이용해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했다.

남면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통해 최근 지역 내 어르신 가구 20곳에서 조명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남면 소재 참든건강과학 주식회사 소속 '온맘다해 봉사팀'이 조명 설치와 콘센트 교체 작업에 참여했다.

김만호 남면장은 "그동안 저소득 가구 지원에 집중돼 있었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으며, 더욱 촘촘한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에 엘이디 조명을 설치하는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 남면이 '손끝으로 켜는 밝은 세상'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LED 조명을 리모컨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 내 어르신 가구 20곳에서 조명 교체 작업이 완료됐다.

참든건강과학 주식회사 '온맘다해 봉사팀'이 조명 설치와 콘센트 교체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기동대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면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